믿음에서 소망에 이르기까지 겪는 과정

(로마서 5:1~4)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믿음에서 소망에 이르기까지 겪는 과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믿음에서 소망에 이르기까지 겪는 과정"
본문은 11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묶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 번에 말씀드리기에는 양이 많기에 오늘은 1~4절까지만 함께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을 향한 소망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될까요? 몇 시간이라고 물어보기에는 민망할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이나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소망은 잠깐씩 갖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망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소망,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소망, 가족과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소망은 잠깐씩만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대한 소망은 주야로 잊어버리고 살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서 소망에 이르기까지에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아무리 믿는다고 자처할지라도 소망의 단계에 이르지 못합니다. 소망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에서 소망에 이를 수 있는지 본문을 통

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소망의 단계로 확산시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창조주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바로 1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내가 창조주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는 은혜 안에 들어갔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는 말씀은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광이란 의식과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등을 하시는 상태입니다. 의식에서 존재감의 대상이 하나님인 상태를 계속 유지해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은 충만해지고자 좋음의 대상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만을 유일한 좋음으로 선택해서 바람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유일한 있음으로 느껴서 의식이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항상 유지되고, 하나님을 유일한 좋음으로 느껴서 마음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열망하는 상태가 되면 즐거움과 기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 일이 바로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유일한 있음이시자 유일한 좋음이신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면 의식과 마음에서 그 영광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유지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질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소망에 이어서 환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일을 지속함이 소망이고, 소망이 있

을 때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존재감의 일등이시고 좋음의 일등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의 좋음에 눈을 뜬 사람이 돈을 바라고,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좋으심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바라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는 은혜의 상태를 실제로 삶의 현장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하게 있음과 유일하게 좋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물론 삶의 현장에 나가면 바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식에서 사장님의 존재감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또 마음에서 돈이 하나님의 좋음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의식이 하나님의 있음을 일등으로 유지해야 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좋음을 일등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감과 좋음을 일등으로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상태로 삶의 현장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환난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자손이라면 이 세상의 삶 자체는 환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환난임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소망의 단계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망하고, 보좌에 계신 아버지를 소망하는 시간이 하루에 5분도 안 되는 이유는 삶이 환난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의식에서 하나님의 있음이 일등을 하고,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좋음이 일등이 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환난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소망에 이르지 못합니다. 삶을 환난으로 받아들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과정과 과제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삶은 환난입니다. 환난을 의미하는 헬라어 틀립시스(θλίψις)는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낸다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닮았습니다. 옛날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즙을 짜는 틀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았습니다. 포도가 으깨지고 짓이겨져야만 즙이 나옵니다. 우

리는 환난이라는 말에서 자동적으로 박해나 핍박 등을 생각합니다. 이슬람이나 중국 등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겪는 비인도적 처우를 환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삶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어려움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사업이 안 풀리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중대한 재정적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믿음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당하는 환난은 이러한 환경적 차원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일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의식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일등이 되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좋음이 일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의식 안으로 끝없이 치고 들어오는 수많은 대상들을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월급과 승진은 좋음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직장 동료들이 월급과 승진을 열망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월급과 승진은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지 않으면 마음에서 하나님의 좋음은 일등 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의식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일등을 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좋음이 일등을 하는 것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골방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다만 이것이 환난인 이유는 믿음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삶에 현장에서 눈 뜨고 귀 열고 말하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제치고, 있음을 주장하며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서도 세상 것들이 하나님을 제치고 좋음을 주장하며 들어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발로 포도를 짓이겨 포도주를 만들듯이 의식과 마음을 쥐어 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식에 들어온 세상의 있음과 마음에 들어온 세상의 좋음을 쥐어짜듯이 짜내서 몰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의식에 세상의 있음이 들어와 있고 마음에 세상의 좋음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영광의 하나님 보기가 유지되려면 끊임없이 의식과 마음 안으로 들어와 일등이 되고자 하는 세상 것들을 짜낼 수 있어야 합니다. 포도를 밟아 즙을 짜내듯 세상 것들을 밟아 의식과 마음에서 짜내서 밖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과 마음을 쥐어 짜내기는 곧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환난과 다른 이유는 의식과 마음의 문제를 염두에 두

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된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노릇 하기를 환난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식과 마음을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며느리의 의식과 마음에서 일등을 하는 대상은 시어머니입니다. 부정적 의미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없는 상황을 가장 좋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믿음의 자손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시어머니가 있느냐 없느냐, 시어머니가 못 되게 하느냐 좋게 하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식과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등이 아닌 상태를 문제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식과 마음 안으로 환경적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씨름하는 것을 환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믿음의 자손들은 환경적으로 주어진 대상들이 의식과 마음 안으로 들어온 것 자체를 문제시합니다. 이처럼 의식과 마음 안에서 세상 것들을 내보내는 것이 환난입니다.

환난은 무엇인가를 상실하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실은 의식과 마음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잃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은 영광의 하나님을 의식과 마음이 지속적으로 바라보기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잃을 수 있기에 환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끊임없이 의식과 마음으로 세상이 들어와 하나님의 일등 되심을 지워버리려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의식과 마음이 세상 것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틀에 포도를 넣고 밟아서 포도즙을 짜내는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태도가 바로 인내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손에게 삶은 환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환난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기꺼이 수용하는 태도가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다면 환난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환난은 삶의 현장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믿음의 자손에게 필수적인 일입니다. 환난은 삶의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열악해도 환난이고 순탄하면 순탄한 대로 환난입니다. 순탄한 환경 속에서 사람과 대상들을 의식과 마음으로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손의 환난은 자처하는 환난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자처하는 자세가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16절에

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하여 우리를 향하신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환난을 자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머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과 마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밖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에 그 자체가 환난입니다. 세상에 속하면 영광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상태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자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자처하는 태도가 인내입니다.

4절을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연단으로 번역된 헬라어 도키메(δοκιμή)는 경험, 증거, 인격, 자격, 시험 등의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단이란 어렵고 혹독한 과정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적인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에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환난의 과정을 반복하면 연단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환난을 비유적으로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의식과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등 되심이 보이지 않게 된 상태를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죽여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행해나가야 할 환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환란은 육체적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행해야 할 환난은 육체적으로 주어지는 고통이 아닙니다. 육체적 고통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써 고통 없는 환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틀에 포도를 넣고 밟아 포도즙을 짜내듯이 십자가를 통해 의식과 마음에서 세상 것들을 빼내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연단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내로 환난을 겪는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의식과 마음 안으로 세상은 들어오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끝내는 의식과 마음이 단단해져서 어떤 치열한 상황에서도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생각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대해 온유한 경우가 많습

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는 곧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단단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의지와 마음이 세상에 대해 활짝 열립니다. 세상에 대해 얼마나 온유한지 모릅니다. 반면에 살아계시며 지속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단단하고 딱딱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완고한 상태를 "목이 곧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온유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즙을 짜듯이 세상이 들어온 의식과 마음을 십자가로 쥐어짜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난의 과정을 인내의 태도로 받아들여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세상을 향해 연단된 상태가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딱딱한 상태였지만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목이 곧고 완고한 사람들이 됩니다.

베드로가 산헤드린공회에 섰을 때 그들의 말을 거절하였습니다. 산헤드린공회원들이 보기에 베드로는 말을 듣지 않는 목이 곧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세상에 대해 목이 곧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하지만 우리는 돈에 대해서 완고해져야 합니다. 또 세상은 건강이 최고라고 하지만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완고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의식과 마음 안으로 세상이 들어온 상태를 포도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틀에 세상을 집어넣고 쥐어짜서 내보내는 십자가 생활화는 환난을 자처하는 인내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고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단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어떤 일도 나의 의식과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 가장 완고한 상태가 드러난 대표적 사건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육체까지 포함한 세상을 향해 스데반 집사님의 의식과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그렇기에 돌에 맞아 죽는 극한 상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식과 마음 안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지없는 온유한 상태였기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환난을 자처하는 인내의 마음을 반복함으로써 연단은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었으면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에서 그런 즐거움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을 향해 의식과 마음이 온유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의식과 마음이 세상을 향해 부드럽기에 삶의 현장에 나가면 의식과 마음에서 세상이 일등을 합니다. 일등 하였다는 것은 바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재적으로라도 세상을 향하는 바람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한 소망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인내로 환난을 받아들이고 반복됨으로 연단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지독하게 완고한 상태가 되어야 하늘을 향하여는 열리고 온유해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된 자들답게 하나님의 일등 되심을 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소망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소망에 이르기 위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환난의 과정을 인내로 받아들이기를 반복함으로써 연단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한없이 온유하고 하늘을 향하여 한없이 딱딱했던 상태는 반대가 돼야 합니다. 환난을 인내로 받아들임을 반복하여 연단이 이루어져서 세상을 향하여는 딱딱해지고 하늘을 향하여는 완전히 열리고 온유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일등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소망의 단계에 이르기만 해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등 되심을 유지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고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가 환난입니다. 이 환난을 겪으려면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이 환난을 기꺼이 삶의 현장에서 받아들이게 합니다. 날마다 인내로 환난을 반복할 때에 연단이 주어집니다. 이 연단의 단계에서 세상을 향해 추호의 타협도 없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이 볼 때 너무나 완고해 보일 정도로 연단이 이루어지면 하늘을 향한 온유함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전적으로 천국을 현실로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소망이 이루어지며 그 소망 속에서 천국의 기운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믿음에서 소망으로 이르는 이 과정을 기꺼이 기쁨으로 인내하며 받아들여 기어코 세

상을 향한 연단을 이루어내고 하늘을 향한 무한한 온유함 속에서 하늘만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